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5월 3일 금요일 (음 3월 29일)

제22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여러분, 반가워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 관련기사 12편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2일 전주시 옥토주차장 전주 돔 상영장에서 열린 가운데 개막식 사회자 최원영, 한예리가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열망 영화인에게 전달

전주시, 올해 20돌 맞는
국제영화제 방문객 대상
특례시 서명부스 운영
봉사단체·중기연합회
적극 참여 동참 이끌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전주 시민들의 열망이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영화인과 관람객에게 전해졌다.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해바라기봉사단·사랑의올타리 봉사단은 2일 전주국제영화제 주요 행사장인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영화제를 찾는 영화인과 전국 영화팬들을 상대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홍보 및 서명운동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자생단체 회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오거리 문화광장과 중앙살림광장, 메가박스 등 3곳에 각각 전주 특례시 서명운동 부스를 설치하고,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운영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

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상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전주를 찾는 영화인과 영화제 관람객에게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알렸다.

전주시 중소기업연합회(회장 임동욱)도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오는 10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대형전광판에 자체 제작한 특례시 지정 홍보영상을 노출함으로써 전주 특례시 지정을 열망하는 전주 시민들의 열의를 영화인과 외지 관람객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전주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운동'은 현재까지 50만명을 넘어 목표인원 30만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특례시 지정에 대한 전주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현

재까지 종교계와 시민단체, 경제·금융계 등이 작성한 서명부가 줄을 잇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영화제 기간 동안 서명운동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서명운동이 완료되는 오는 3일 이후에는 전주 시민과 도민들의 열망을 담은 서명부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부처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시민에서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10일 ‘한반도 첫 수도’ 고창서 도민체전 개최

200만 전북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56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고창군에서 펼쳐진다.

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제56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열리는 ‘천년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고창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도민체전은 2년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

이번 체전에서는 검도와 게이트볼, 골프, 농구, 레슬링, 수영 등 36개 정식종목과 보디빌딩과 파크골프 등 2개의 시범종목이 펼쳐지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2만5,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한다.

경기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4일부터 6일까지는 사정경기로 배드민턴과 야구, 정구, 패러글라이딩 종목이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社 告



제16회 전국 품바왕 명인전

일시: 2019년 5월 3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품바 명인전이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 ▲주최: 새 전북문화진흥원
- ▲주관: 새 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JJQ(지방자치TV) 전북총국
-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 ▲문의: 새 전북문화진흥원 (063-288-9700)

국가예산 확보 ‘전력투구’

송 지사, 정부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등 건의

송하진 도지사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대선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사업을 중심으로 확보 활동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2일 이개호 농식품장관과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 국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송 지사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전북의 인프라 등 내재적 가치를 잘 활용해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농생명 및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 등 지역공약·국정과제 반영 사업에 대한 중앙차원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이날 송 지사가 부처를 방문해 건의한 주요 분야별 사업으로는 식품·종자·ICT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벨

리로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방문,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인프라 시설을 활용해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편의식)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 등 반영을 건의했다.

군산지역 조선업체들의 사업다각화로 대기업 의존도 탈피와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고, 새만금지역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지원실장을 만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기업집적화,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센터가 구축되고 있는 새만금지역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추경예산 국비 6억원 반영 등도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전국 품바명인전 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고마워요 50년, 함께해요 100년!